

손에 손잡고~

일석이조 효과 예산절감 !



영 천 시

Contents

01 과제 선정 배경

02 문제 원인 분석

03 방안 마련 및 장애극복

04 성과

영천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사업 추진

영천댐 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민을 위한
주민복지 및 경제활성화 방안 필요



지역간 관광벨트 조성



온실가스 감소



주민여가활동 기여

영천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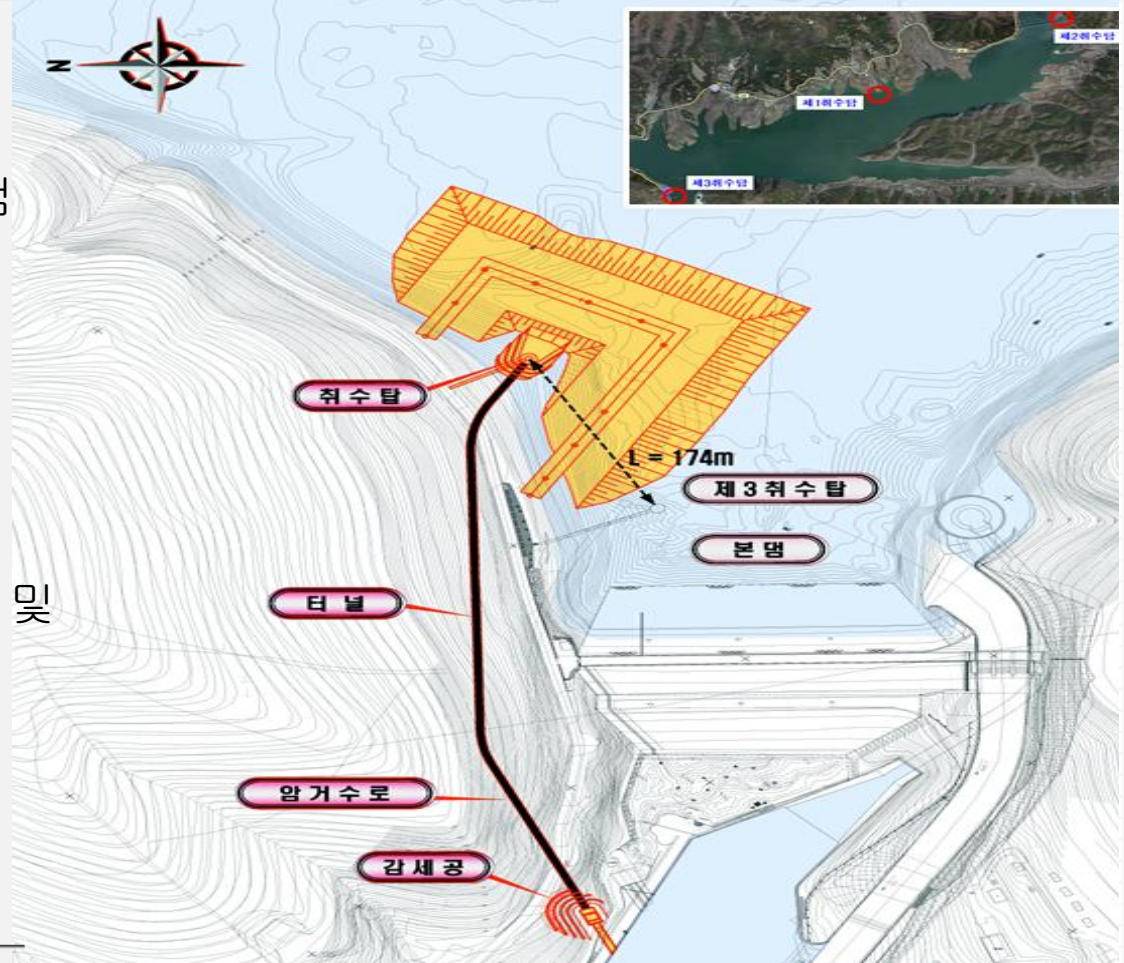
- ① 위 치 : 자양면 성곡리 ~ 영천
- ② 추진기간 : 2010. 10 ~ 2020. 12
- ③ 사업비 : 12,000백만원
- ④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L=5.0km, B=4.5m)



영천댐 안전성강화사업 개요

- ❶ 위 치 : 자양면 성곡리(영천댐)
- ❷ 추진기간 : 2020. ~ 2022. 10.
- ❸ 사 업 비 : 574억원
- ❹ 사업내용 : 기존 취수탑 내진 보강 및
신설 취수탑 설치 1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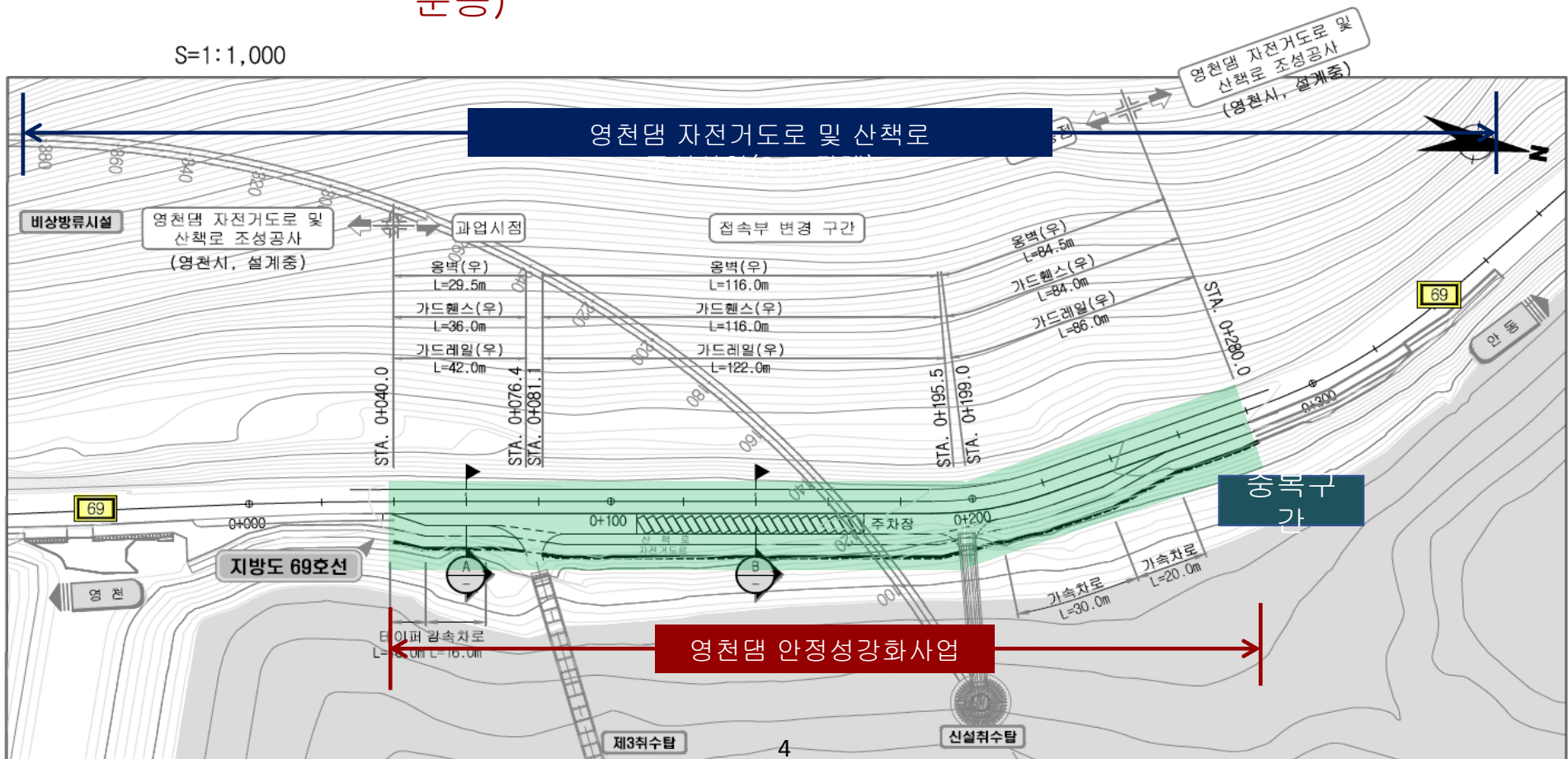
등



02 문제원인 분석

중복구간 발생

영천시 : 9단계 사업구간(2019년 준공)
수자원공사 : 신설취수탑 진출입도로(2022년
준공)



03 방안마련 및 장애극복

WIN-WIN 협업체계 구축

01.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자

02.

수자원공사에
설계반영 요청

03.

1차 협의

04.

2차 협의

중복구간 확인

답변 : 부정적

- 턴키방식으로 사업 추진
- 이미 현장설명회 및 원안심사 신청 진행 중이므로 반영 어려움

※ 턴키방식 : 건설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도맡아 하는 입찰 공사

이중시공의 부담 설명

- [2019.03.] 포항권지사 방문
- 자전거도로 사업이 먼저 추진한 정성강화사업 시, 기존 추진된 사업구간에 겹칠 수 있음

업무 협조 제시

- 영천댐 관리사무소 주변시설물 개선
- 안전성강화사업 관련 업무 적극 협조 약속
⇒ 예시. 도로변 식재 이식 등

‘영천댐 안정성강화사업’구간 내 ‘영천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 반영

물관리 일원화, 국민과 함께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수신 영천시장(환경보호과장)

(경유)

제목 영천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공사(9단계)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영천시 환경보호과-10264(2019.05.27.)호의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요청하신 『영천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공사(9단계)』의 사업 구간내 우리공사에서는 『영천댐 안전성강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해당 구간에 대한 기본설계 도면을 불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본 사업의 실시설계 완료('19년말) 후 사업주관부서인 K-water 물인프라사업처에서 설계에 대한 세부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 임 : 영천댐 안전성강화사업 기본설계 도면 1부, 끝.

우리시에서

실시예정이었던 9,10단계

구간중

일부(L=0.24km) 추진

영천댐 안전성강화사업 설계

반영

영천시

“사업비 7억원 예산절감”

240m × 290만원 = 7억원

※ 산출근거

기 추진중인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공사 사업비 비율에 따름
(약 1m당 290만원 예산 소요)



한국수자원공사

“중복공사 불필요”

2년된 시설물 철거부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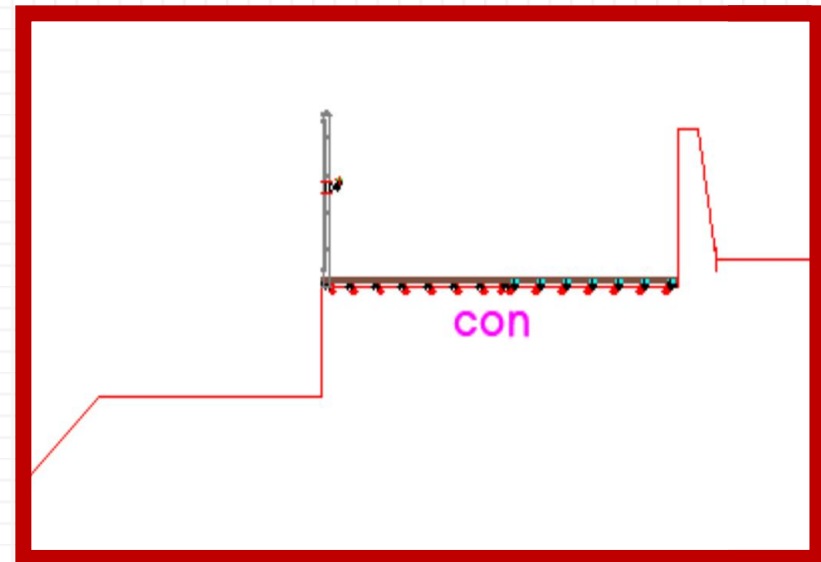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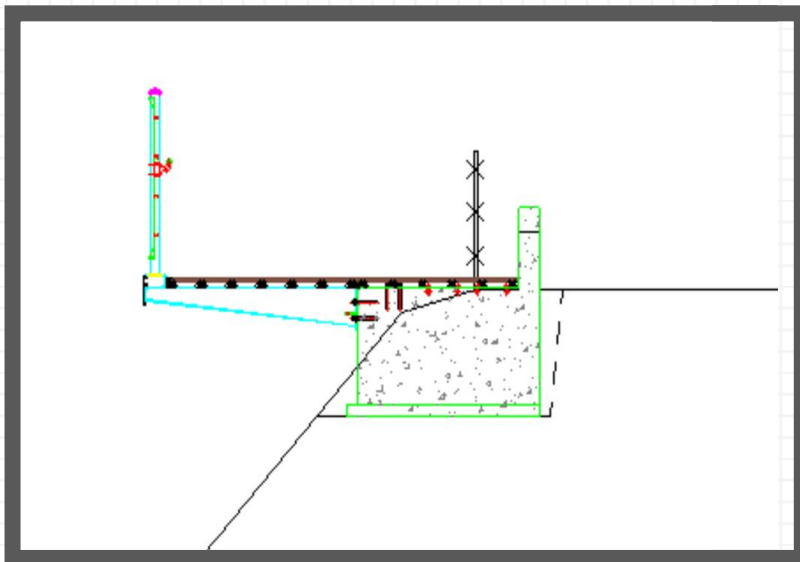
“적극적 업무 협조”

관리사무소 주변시설물
개선

추가 예산절감 계획중

경상북도에서 추진중인 ‘자양도로 선형개량공사(L=0.22m)와 중복되는 구간 협의 추진계획

- 선형 개량 후 하부구조물 설치 없이 포장만으로 자전거도로 조성 가능
- 예산절감(5억원) 기대



▶ 손에손잡고~ 일석이조 효과 예산절감 !!

전



후



경북도민일보

2019년 08월 06일 화요일 008면 지역종합

영천시, 낙동강수계 공모 사업비 최다 확보

2008년부터 10여년간 461억 중 80억원 받아
22개 지자체 중 최고... “시민공감 정책개발 최선”

영남매일

2019년 08월 06일 화요일 012면 지역

영천시, 낙동강수계 공모사업비 확보 ‘ 으뜸’

2008~2019년 461억원 중 80억원 확보...22개 지자체 중 최고

영천시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주민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해 낙동강권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낙동강권역 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특별지원 공모사업에서, 시는 전체 사업비 461억 원 중 가장 많은 16건, 80억3천6백만 원(17.4%)이 반영됐다. 영천시에 이어 경남 거창군 62억6천만 원(13.4%), 경남 산청군 33억6천만 원(7.2%), 경남 사천시 28억6천만 원(6.7%) 순이었다.

시는 공모사업비로 ‘삼매리 지역특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10억 원)’, ‘미생물 공급사업(10억 원)’ 등 15건의 지원사업을 완료했다.

올해에도 자양면의 숙원사업인 ‘자

양면 복지회관건립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신청,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3년간 12억 원을 확보해 오는 2021년까지 건립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비로 추진 중인 영천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의 예산절감을 위해 금년 초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취수탑 공사 시에 수자원공사에서 자전거도를 병행해 조성키로 함에 따라, 약 7억 원의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으며 절감된 예산은 주민들을 위한 복지증진 등 숙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기문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공감형 정책개발과 예산확보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영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재 기자

동강권역
2008
업을 실

사업비
80억
최고 많

은 사업비를 주었다.

영천시에 이어 경남 거창군 62억 6000만원(13.4%), 경남 산청군 33억6000만원(7.2%), 경남 사천시 28억6000만원(6.7%) 순이었다.

시는 공모사업비로 삼매리 지역특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10억원), 미생물 공급사업(10억원) 등 15건의 지원 사업을 완료했다.

금년도 공모 사업으로는 자양면의 숙원사업인 자양면 복지회관건

립사업을 신청, 특별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3년간 1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2021년까지 건립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비로 추진 중인 영천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의 예산절감을 위해 금년 초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결과 취수탑 공사 시에 수자원공사

에서 자전거도를 병행해 조성키로 해 약 7억원의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절감된 예산은 주민들을 위한 복지증진 등 숙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기문 시장은 “시민공감형 정책개발과 예산확보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영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안서기자 kis@hidomin.com

경북일보

2019년 08월 06일 화요일 008면 지역종합

영천시, 낙동강수계 공모사업비 80억 확보

자양면 복지회관 건립 등 16건

22개 관련 지자체 중 최다액

영천시는 낙동강수계 공모 사업의 하나로 ‘자양면 복지회관건립사업’을 신청, 선정됨에 따라 3년간 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08년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하는 주민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해 올해 자양면 사업까지 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낙동강권역 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 공모사업비 461억 원 중 영천이 16건 사업에 80억3600만 원(17.4%)으로 지자체 중 가장 많으며 이어 경남 거창군 62억6000만 원(13.4%), 산청군 33억6000만 원(7.2%) 순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삼매리 지역특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10억 원), 미생물 공급사업(10억 원) 등 15건의 지원사

업을 완료했다.

또 이번에 선정된 자양면민들의 숙원사업인 ‘자양면 복지회관건립사업’은 3년간 12억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건립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비로 추진 중인 영천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취수탑 공사 시 수자원공사에서 자전거도를 병행해 조성하는 등 약 7억 원의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감사합니다

예산은 정책이다 !